

'배드파파' 장혁·'여우각시별' 이제훈·'미스 마' 최광제·'플레이어' 태원석

여심 사로잡는 안방극장 속 '괴력남'

주변인 지킴이·부패 척결 등 통쾌한 액션에 시청자 호응 역할 위해 몸 만들기 열정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 이유도, 그 힘을 쓰는 이유도 각자 다른 '괴력남'들이 최근 TV 드라마를 이끌 어간다.

알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능력이 생기거나 남과는 다른 신체 구조나 능력으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지키는 이들의 괴력은 앞으로 극의 전개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MBC TV 월화극 '배드파파'의 유지철(장혁 분)은 몰락한 복싱 챔피언으로, 우연히 먹게 된 신약으로 괴력을 얻는다. 형사로 전직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지철은 가정이 파탄 직전이지만, 그는 언제나 가족 생각뿐이다.

어느 날 신약 실험에 참여하게 되고 약을 먹으면 괴력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을 위해 다시 링에 오르고 괴력으로 체급이 높은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다. 오랜 절친도·복싱 경력을 지닌 장혁은 '복싱 괴력남'에 최적화된 연기를 보여준다.

다만 이 신약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앞으로 유지철의 미래에 어떤 먹구름을 드리울지가 극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혁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신약 복용으로 유지철만 괴력이 생기는 내용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해질 것"이라며 "배우가 10년의 복싱 경력이 있어서 맡은 역할을 수월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 TV 월화극 '여우각시별'의 이수연(이제훈)은 베일에 싸인 괴력의 소유자다. 그의 오른팔은 쇠 파이프를 휘게 할 정도로 단단하고 불펜이 쫓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수연은 그런 팔로 여주인공 한여름(채수빈)과 주변 사람들을 갑작스레 닥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그의 팔에 보형 보조 '웨어러블' 장치가 있고 과거 사고를 당해 그런 팔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그려졌을 뿐 아직 그 비밀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시



◀'플레이어' 태원석

◀'배드파파' 장혁

◀'여우각시별' 이제훈

◀'미스 마' 최광제

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의 '정체'가 드라마 연관검색어에 떠 있을 정도다.

이수연의 괴력 팔에 얽힌 사연은 앞으로도 극을 끌어가는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제훈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팔에 관련한 정보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비밀이 더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초현실적인 힘은 아니지만, SBS TV 주말극 '미스 마'와 OCN 주말극 '플레이어'에도 배우 마동석이 연상케 하는 힘센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미스 마'에서 배우 최광제가 연기하는 고말구는 전직 조직폭력배로 미스 마(김윤진)가 탈옥 후 숨 어든 무지개마을에 산다. 그는 떼인 돈 받아주는 일을 하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여러 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통쾌한 액션을 선사했다.

고말구가 자신의 누명을 풀어준 미스 마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의 호위무사가 될 것으로 예고됐다. 그가 미스 마의 복수를 도우면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레이어'의 도진웅(태원석)은 태평양강이 넓은 아개부터 압도적이다. 그 역시 수심명을 거뜬하게 상대한다.도진웅은 특히 부패한 권력에 맞서 주먹을 휘둘러 시청자들로부터도 호감을 얻는다. 큰 몸집과 반대로 귀여운 '반전 매력'도 선보인다. 태원석은 이번 역할을 위해 몸무게를 늘리는 등 특별히 공을 쏟았다.

태원석 소속사 제이스타즈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배우가 역할을 위해 35kg를 증량했다"며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닭가슴살 12kg를 갈아서 먹고 있다"고 전했다.

서유정 '아내의 맛'서 신혼생활 공개

TV조선 오늘 밤 10시 방영

최근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으로 주목받은 배우 서유정(39·사진)이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남편과 함께 출연해 1년 차 신혼부부 생활을 공개한다고 TV조선이 15일 밝혔다.

서유정은 앞서 세 살 연상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하고 지난 7월에는 '아내의 맛'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신혼생활을 가감없이 공유한 바 있다.

서유정은 이번 방송에서 '살림의 여왕', '밥상의 여왕' 등 면모를 자랑할 예정이다. 방송은 나아가 부부 사랑 가득한 신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40대 나이에 만난 '만혼 부부'가 고백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담는다.

16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KBS순천, 여순사건 70년 특별다큐 '낙인'

오늘 오후 7시 35분 방영

KBS 순천방송국이 16일 오후 7시 35분 KBS 1TV에서 여순사건 70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낙인'〈사진〉을 방영한다.

'낙인'은 70년 전 봉기와 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유족들의 삶을 조명한다.

프로그램은 먼저 여순사건이 단순한 군 내부의 항명이 아니라,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에서 누적이던 모순이 대중 저항 운동으로 폭발한 현상임을 미군 기록과 각종 사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증명한다. 아울러 여순사건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의 증언록을 최초로 공개해,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자행된 무법적인 민간인 학살의 실상을 밝힌다.

또 이승만 정부가 반공 국가의 형성에 여순사건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여순사건에서 시작된 '빨갱이 낙인찍기'가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됐음을 확인한다.

제작진은 이런 '낙인찍기' 속에서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온 유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해외 사례로 여순사건과 유사한 배경에서 2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만 2·28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대만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순사건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KBS 순천 제작진은 "국가의 민간인 학살과 이후 낙인찍기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이 여순사건의 본질이며,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했다"며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나눔특집 2018 맛있는 나눔, 푸드뱅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제99회 전국체육대회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코딩배틀 네오봇마스터	1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MBC스포츠 2018 KBO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KBS 순천 특별기획 여순사건 70년-낙인	50 끝까지 사랑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최고의 이혼	20 MBC 뉴스데스크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불빨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회사 가기 싫어(재) 5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생애 한 번쯤은 인도 2부 무지개빛 도시 라자스탄〉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가을이라 좋아 2부 가을 터는 남자〉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차강티미 - 흰 낙타 이야기 1부〉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파프리카 달걀찜과 고등어구이〉	16:45 당동명 유치원1~2	24:50 한국영화특선 〈로봇, 소리〉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음 9월 8일 辛巳)

<p>36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48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60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역전 될 수 있다. 72년생 평상시에 아닌 배다른만 행하면 그만이다. 84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61, 31</p>	<p>42년생 철저한 정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54년생 막연한 추정은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66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78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90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30</p>
<p>37년생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 49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61년생 변화를 갖는다면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니라. 73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효과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85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다. 행운의 숫자 : 36, 35</p>	<p>43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지 말라. 55년생 즉시 받아들일도록 해야겠다. 67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9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91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다면 외판의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69, 79</p>
<p>38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야 한다. 50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62년생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74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86년생 형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행운의 숫자 : 67, 09</p>	<p>44년생 수효가 늘어나면서 득도 되지만 어수선해진다. 56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68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80년생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92년생 제대로 앉여지를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97</p>
<p>39년생 허황된 것을 피해야 손실을 최소화한다. 51년생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63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75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오히려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 87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61</p>	<p>45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57년생 일관성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취하느니라. 69년생 불합리한 판단이니 벗어나야만 한다. 81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93년생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2, 55</p>
<p>40년생 수용하는 것이 백 년 낫다. 52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64년생 원칙에 따라야 무리가 없다. 76년생 부수적인 것은 미루고 당면 과제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소모적인 양상을 야기할 뿐이니라. 행운의 숫자 : 11, 75</p>	<p>34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하다. 46년생 기사유역이라 하였으니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58년생 인식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전을 꾀할 수 있다. 70년생 다양하게 세분화 되면서 체계가 서리라. 82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83, 23</p>
<p>41년생 꿈 심은데 풍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느니라. 53년생 만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65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하라. 77년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89년생 추진하는 방향과 현상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7, 44</p>	<p>35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47년생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라. 59년생 절제하지 않는다 면 위험하다. 71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83년생 소모적이거나 일회적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7, 20</p>